

“헌혈 통한 80년 5월 생명 나눔정신 이어가야”

김동수 혈액원장·고려고 학생
옛 광주적십자병원 현장 탐방
5·18 시민 헌혈·인도주의 배워
“헌혈 교육 장소로 활용됐으면”

“역사적 순간을 간직한 현장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5·18 4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천변우로 415)’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병원 내부는 45년 전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한 모습이었다. 낡은 경첩, 벗겨진 페인트는 오랜 시간의 흔적을 증명했다. 건물 1층과 마당만 개방됐지만 병원을 찾은 시민들은 그날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이날 오후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과 고려고등학교 레드캠페이너 학생 9명이 병원을 찾았다. 김동수 원장은 5·18 이후 12년이 흐른 1992년 적십자사에 입사, 옛 적십자병원에 발령받아 1년 6개월간 근무했다. 역사적 현장에서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옛 광주적십자병원에서 고려고등학교 학생들에게 80년 오월 현장 상황과 5·18 헌혈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근무하며 5월의 목격담을 들었던 그는 생생한 그날의 현장과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오월 광주의 헌혈 역사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다.

김 원장은 “5월21일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한 날,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던 이곳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총상을

입어 피를 흘리며 실려 왔다”며 “응급실에 침상이 부족해 자리를 잡지 못한 부상자들은 복도에 누워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를 흘리는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김 원장의 질문에 학생들은 “마취제, 혈액”이라고 대답했다. 관람을 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김 원장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적십자 병원에서 이뤄졌던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로 실현된 인도주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당시 적십자 병원에 혈액이 필요한 부상자들이 많았지만 계엄군에 의해 혈액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겁 먹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대동정신을 보였다. 21~22일 411명의 혈액이 채혈됐고 병원 앞에는 헌혈을 하기 위해 시민들이 50m 넘게 줄을 섰다”고 힘줘 말했다.

헌혈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계엄군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박금희 열사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과 시민들은 탄식과 함께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당시 병원에서는 군인들과 시민들을 가리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이 열혈 동안 철야 근무를 하며 치료하고 구호했다”며 “모든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돕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이 이야기를 마치자 학생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려고 1학년 옥지원(17)군은 “병원에

서 근무했던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당시의 상황이 더욱 생생히 느껴진다”며 “45년 전 급박했던 순간에도 광주 시민들의 헌혈 행렬에 감동 받았다. 생일이 지나는데 바로 헌혈을 하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고려고 1학년 나준성(17)군은 “5·18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헌혈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들의 연대 정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며 “적십자 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진처럼 앞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분야에서 힘을 쓰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해설을 마친 김 원장은 건물을 둘러보며 광주의 헌혈 역사를 품고 있는 적십자 병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해져 병원 전체가 개방됐으면 좋겠다”며 “헌혈을 통한 생명의 나눔과 대동정신이 깃든 이곳이 잘 보존돼 헌혈 교육의 장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유골함 침수’ 공식 사과

2023년 2기·지난해 1기 침수 확인

국가보훈부가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내 안장 유골함이 침수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침수 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묘역 배수개선 공사와 유골함 밀봉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국립묘지 묘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묘역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2017년부터 안장을 시작한 5·18묘지 2묘역은 2023년 이래 유골자 유해가 담긴 유골함 침수가 3차례 확인됐다.

침수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골자 묘

에 별세한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파묘한 장례업체가 발견했다. 이후 물에 잠긴 유골함에서 유해만 꺼내 재화장한 뒤 다시 안장했다.

보훈부가 공식 파악한 연도별 침수 피해는 2023년 2기, 지난해 1기다.

지나해부터 현재까지는 추가 침수 피해가 없었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다만 안장 유골함을 다시 열어야만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훈부는 그동안 2묘역 내 원활한 배수를 위해 2020년 빗물배수로 설치, 2021년 배수공사 등 침수 피해 방지 노력을 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훈부는 후속대책으로 집중호우 기간 중 빗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배수 시설

공사를 확대 추진한다.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보훈부는 실제 예산 반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골함 밀봉 방식 개선도 약속했다.

보훈부는 또 “5·18민주유공자 안장 수요·추이 분석, 유관기관 의견, 기존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립5·18민주묘지의 묘역 확충과 안장 여건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유골자 유족들은 “오월 영령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조성 초기부터 나온 수해 우려와 각종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뒷북 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유철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 등이 지난 16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전남일보와 광주광역시 공동 주최로 열린 ‘기록, 민주화의 길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민주화 과정의 결정적 순간들… 민주주의 가치 재조명

본보, ‘기록, 민주화의 길’ 사진전

시청 1층서 내달 10일까지 전시
강 시장 “시민 힘으로 계엄 막아”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전남일보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사진전 ‘기록, 민주화의 길 사진전’을 개막했다.

이번 전시에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시절(1987~1990년)부터 전남일보 사진기자로 활동하며 광주의 민주화 현장을 기록해 온 김양배 기자의 작품 50점이 소개된다.

전시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장면들을 기록한 보도사진을 통해 현대사의 흐름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김양배 전남일보 사진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 50여점으로 구성됐다. 김 기자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시절(1987~1990년)을 시작으로, 1991년 전남일보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광주 지역과 전국의 주요 민주화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전시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이 담겼다. 광주가 겪어온 고난과 이를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흔적을 돌아보고, 오늘날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는 취지다.

전시 첫날 현장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역사가 시대별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당시 상황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며 “광주시는 계엄을 막고, 탄핵을 가결시킨 시민들의 힘을 이어 민주정부를 향해 최고 투표율인 92.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이찬우(27)씨는 “시청에 불일이 있어 들렀다가 우연히 사진전을 관람하게 됐다”며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사진들이 마음을 울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전은 2회차 전시로 나눠 진행된다. 각 전시 회차별로 주제에 맞는 작품 구성이 이뤄지며, 전시작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기자가 직접 기록한 촬영 연도·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공된다.

1차 전시(16~21일)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들을 중심으로, 2차 전시(26~6월 10일)에는 6월 항쟁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담은 생생한 사진들이 소개된다.

정상이 기자

광주시 ‘민주의 종’ 33번 타종… “더 단단한 민주주의 기원”

5·18정신 전국·세계화 염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 초청

광주광역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8일 오후 5시18분 5·18민주광장 민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5·18기관·단체장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4·16 세월호 참사, 6·9 학동 참사, 1·11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10·29 이태원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대표와 ‘12·3 비상계엄’ 당시 무효 선언연석회의의 참석 인사 등이 특별 초청돼 의미를 더했다.

또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며 윤상원 열사의 기자회견을 통역한 데이비드 리 돌린저 광주명예시민(한국명 임대운), 5·18 당시 여성 시민군으로 활동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후 5·18민주광장 내 민주주의 종각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신수정 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5·18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타종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임영희 씨,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갈루 수 자트모코 ‘아시아 정의와 권리’ 상임이사 등도 함께 타종에 참여해 연대의 의미를 나눴다.

이들은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후 5시18분 정각에 맞춰 ‘민주의 종’을 33회 타종했다.

강 시장은 “올해 민주주의 종 타종식은 더욱 뜻깊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광주의 오월은 세계와 통하는 보통명사가 됐고, ‘12·3 비상계엄’으로 1980년의 계엄이 미래 세대에 살아있는 역사가 됐으며, 자랑스러운 광주를 다시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